



워싱턴문인회 월간 소식 2024년 3월
Vol. 1, Issue 3

A Monthly Publication of The Korean Literary Society of Washington



목차 (What's Inside)

3월 소설문학회 초청강연:	0
한글학교 2024 시낭송 동화구연 나의꿈 말하기 대회 심사:	2
💖 글사랑방 모임 & 문학회 소식 💖	2
수필 문학회 Essayists	2
영 문학회 English Writers	3
소설 문학회 Novelists	3
문인동정(動靜)	4
미주 한국일보에 소개된 문인회원의 글 이 달의 추천 도서	5
워싱턴 문인회 YouTube 채널	5
회비납부 안내 및 월 재무 보고	6
2024년 Calendar & Upcoming Events	7

3월 소설문학회 초청강연:

이덕화 교수의 <스피노자의 철학개념, 코나투스,
능동적 공동체로 읽는 [토지]>

소설가, 문학평론가인 이덕화 평택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화상으로 특강을 가졌습니다. 두 시간동안, 이덕화 교수는 스피노자의 생애와 그의 사상, 특히 그의 책 『에티카』 속에서 사용한 ‘능동적 공동체’라는 단어에 주목해 박경리의 대작 『토지』와 최명희의 『혼불』을 비교분석, 해석하였고, 참석자들은 한국의 두 대작을 짧은 시간에 명쾌히 이해시킨 그 강연에 감탄하였습니다. 이날 강연에는 워싱턴 문인회 회원 외에도 시카고의 여러 한인 문인들과 시애틀의 문인도 참석하여 더욱 뜻깊은 모임이 되었습니다.

[강연 공고 링크](#)
[강연 녹화 파일 링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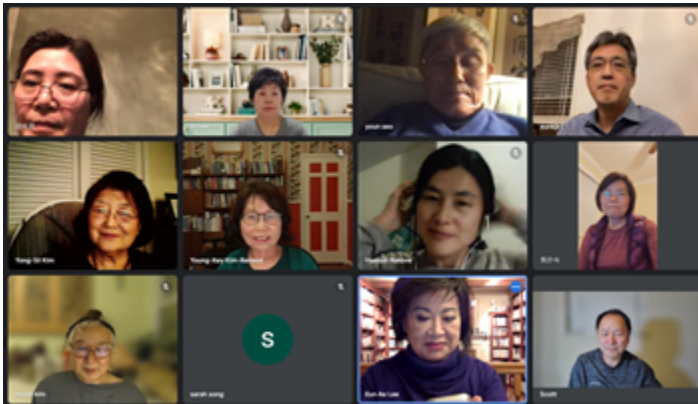
한글학교 2024 시낭송 동화구연 나의꿈 말하기 대회 심사:



차세대에게 한글과 한국 문화를 전수하기 위해 애쓰는 한글학교의 2024년 시낭송 동화구연 나의꿈 말하기 대회가 3월 23일 버지니아 페어팩스의 하상한국학교 (성 정 바오로성당)에서 열렸다. 이러한 고귀한 한글학교의 행사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온 워싱턴문인회는 올해도 20명의 문인회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여 봉사했고, 시상식에 장학금으로 수여될 상금을 후원하였다.

[관련 미주 한국일보 기사 링크](#)

♡ 글사랑방 모임 & 문학회 소식 ♡



시 문학회 Poets

시문학회는 3월 19일 화상으로 ‘글 사랑방’ 모임을 가졌다. 9편의 회원 자작시가 올라왔고 11분의 회원이 2시간 동안 서로의 글에 대한 합평의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이날, 올해의 ‘최연홍 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되신 최은숙 시인님의 수상을 축하하고 수상 소감과 수상작 1편을 낭송하고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상자이신 최은숙 시인님은 계간 문예지 ‘시와 시학’에 신인추천(2014)을 받으며 시인으로 등단했고, 수상시집은 2020년 펴낸 첫 시집 ‘2020 스물스물’이며 대표시로는 ‘감나무’, ‘신호등’, ‘파’, ‘오래된 나무’가 꼽혔다.

3월 한국일보에는 김은영 회원님의 ‘내가 네 에미다’와 윤석호 회원님의 ‘내 집은 왜 종점에 있나’ (박소란 시집 『심장에 가까운 말』을 읽고)가 지면에 실렸다.

이번 달에는 박소란 시인의 초청 강연이 예정 되어있다. 강연 행사에 시낭송 혹은 질문등으로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린다.

수필 문학회 Essayists

모임날짜: 3월 16일 저녁 7시

참석인원: 7명(송윤정, 이성훈, 문영애, 이영미, 노순이, 김정인, 석민진)

*올리는 글의 형식을 아래와 같이 통일시키고자 합니다.

- 문단의 들여쓰기는 '한글'의 경우 한 단어, '워드'의 경우 0.15로 설정

- 워드에서 들여쓰기 하는 방법은 Format -> Align & Indent -> Indentation Option -> Special Indent 에 0.15 입력하시면 됩니다.

- 줄 간격 설정은 '한글'의 경우 160, '워드'의 경우 1.15로 설정

- 워드에서 줄 간격 설정하는 방법은 Format -> Line & Paragraph Spacing -> 1.15 클릭하시면 됩니다.

*3월 말까지 워싱턴문학에 올릴 글을 수필문학회 글방에 올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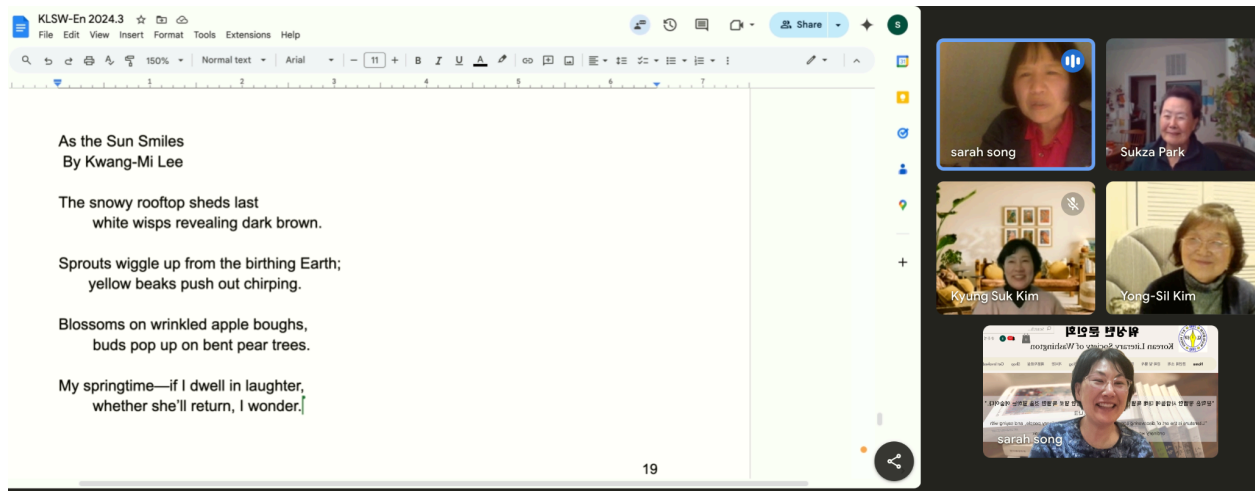
*4월 수필문학회 미팅은 4월 20일 토요일 저녁 7시입니다.

*5월 25일에 워싱턴문인회 총야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모두들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사 관련 자세한 공지는 이성훈 부회장님이 올리실 예정입니다.

*6월에는 Zoom을 통해 수필문학회 회원님들을 위한 강연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공지는 추후 올리겠습니다.

영 문학회 English Writers

The English writers group's monthly meeting took place via Google Meet from 7-9pm on March 23, 2024 (see the attached photo). Only five members were able to attend and share their writings. The written works presented included a novella, an essay, and poems. The participants engaged in lively discussions and exchanged helpful comments. More members are expected to join the discussion at the next monthly meeting, scheduled for 7-9pm on April 27, 2024.



소설 문학회 Novelists

이번 달엔 소설문학회 특강으로 추가 모임은 없었습니다.

문인동정(動靜)



1) 최은숙 시인 '최연홍 문학상' 수상:
 워싱턴문인회의 짧은 시의 대가, 최은숙 시인이 2020년 펴낸 첫 시집 '2020 스물스물'로 최연홍 문학상' 수상했다. 시집은 '워싱턴 문학' 신인상(2005) 수상 이후 '워싱턴 문학' '시향' '시와 시학' '창조문예' 등에 실렸던 작품들을 찾아 한

권에 묶은 것으로, 최연홍 문학상 운영위원회의 권귀순 대표는 “시집에 실린 대부분의 시가 한 두 어절의 단어와 10행 이내의 짧은 구성으로 쓴 극서정시이며 읽는 순간 독특한 감동과 여운을 남긴다”고 평했다.



2) 워싱턴문인회 회원이었던 이현원 작가가 한국을 방문 중인 김인기 고문, 송윤정 회장, 임정현 편집장을 초대해 점심 식사와 디저트까지 함께 즐거운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만남 후, 2024년 워싱턴문학지를 위해 멋진 작품도 기고해 주셨습니다.





3) 출판사 월인 방문: 한국을 방문 중인 송윤정 회장과 임정현 편집장은 서울 성북구 노해로에 위치한 출판사 월인을 방문해, 박성복 대표, 진우성 부장과 2024년부터 문학지 일정 변경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재래시장 길을 지나 주택가에 소나무가 담장을 넘어 그 멋스러움을 드러내는 2층 양옥을 개조한 사무실로 곳곳에 출판된 책들이 쌓여있었습니다. 40년 전 도서출판 월인을 시작해 그 후 연극 대본 출판을 특화한 연극과 인간까지 더해 출판업을 이어오고 있는 곳입니다. 40년간 한 길을 걸어오신 박성복 대표께 “지난 40년간 한국 경제와 사회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는데 출판업은 어떤가”고 여쭙니, 출판업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답이 돌아와 마음이 아렸습니다.

미주 한국일보에 소개된 문인회원의 글

[내가 읽은 명작 2024-03-05 \(화\) 이성훈: 과연 사회적 약자에게도 인권이 있는가?](#)

-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하인리히 뵐 저 / 민음사>

[내가 읽은 명작 2024-03-12 \(화\) 박숙자 -파친코<이민진 장편소설>](#)

[내가 읽은 명작 2024-03-19 \(화\) 윤석호 -심장에 가까운 말 <박소란 시집/ 창작과 비평>](#)

[내가 읽은 명작 2024-03-26 \(화\) 임정현 -동양선비 서양에 가시다 <강용흠 지음>](#)

이 달의 추천 도서

[가족의 온도](#)

김석휘 (지은이) 청동거울 2014-12-01

[작은 땅의 야수들 \(리커버 특별판\)](#)

김주혜 (지은이), 박소현 (옮긴이) 다산책방 2023-06-19

[오늘은 치열업 내일은 스탠드업](#)

제시카 김 (지은이), 고정아 (옮긴이) 길벗스쿨 2023-05-30

워싱턴 문인회 YouTube 채널

하단의 워싱턴 문인회 YouTube 채널을 구독하셔서 창의적인 여정에 동참해 주시고, 감동과 영감을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담은 댓글도 환영합니다.

[워싱턴 문인회 유튜브 채널](#)

이달에 새로 올라온 영상:

워싱턴문인회 전체:

시문학:

 [마당 깊은 집 _ 문숙희](#)

영문학: <한국 작가의 영문 명작 시리즈>

[Cranes by Hwang Sun Won](#)

[The Calligrapher's Daughter by Eugenia Kim](#)

회비납부 안내 및 월 재무 보고

워싱턴 문인회는 버지니아주 정부에 등재된 비영리 단체로서, 찬조 및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회비는 \$120이며 월 모임 참가비는 \$30입니다.

또한, 이미 다른 곳에서 등단하신 분이 문인회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입회비 \$150과 연회비 \$120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일 누락이나 착오가 발견된 경우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비납부:

Pay to Order: **K.L.S.W.** 또는 **The Korean Literary Society of Washington**

보내실 주소: **Kyung-Suk Kim (김경숙 재무)**

7809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문의: kkim5397@gmail.com

2024 [재정보고 파일](#)

2024. 3월

*Checking Acct.

총 수입: \$1840.00 (연회비:김인숙, 윤미희, 정혜선, 박현숙, 김정임, 문숙희
(2년치))

(김영기 전 회장님 도네이션:\$1000.00)

총 지출: \$ 801.99 (2월 행사 비용: 변완수님 구순 케익\$90.00,떡국잔치 총;171.39,
1-3월 까지 웹사이트에 들어간 비용\$385.60, 한글 학교 협의회
찬조금\$150.00)

잔액: \$1038.01

이월액: \$이월액:4324.62 를 더하면

장부잔액: \$5362.63 입니다.

은행 잔고: ***Checking: \$7067.38 : \$장부잔액:\$5362.63:** 이 금액은 **2023**년도
도네이션 금액**\$1100,00** 수입이
2023년도 장부에 기입 되어 현재
장부와 통장금액이 다름. 현재 통장
잔액에는 체크 발행한 지출이 포함
되어 있지 않은 금액입니다.

***Saving: \$5348.40**

***CD 1 : \$15000.00(개시일,12/21/2023)**

***CD 2 : \$10000.00(개시일,02.07/2024)**

총 잔액: **\$37415.78**

*CD이자는 분기별로 기재가 된다고 합니다.

2024년 Calendar & Upcoming Events

1/13	박진임 교수 특강 (한인커뮤니티센터)	7/6	문학기행 (Field Trip)
2/3	회원을 위한 테크놀로지 특강 (MD)	8월	Summer Break
3/1	이덕화 소설가 강연 (Google Meet)	9/7	영문학 강연 (Google Meet))
4/16	시 문학 강연 (Google Meet)	10/5	열린 낭송의 밤
5/25	피크닉	11/2	총회, 워싱턴문학 출판 기념 (MD)

6/7	수필 문학 강연 (Google Meet)	12/7	신인문학상, 송년회 (한인커뮤니티센터)
-----	------------------------	------	--------------------------

박소란 시인 초청강연:

4월 16일 (화) 저녁 · 7:00 – 9:00

Video call link: <https://meet.google.com/org-jjmq-oku>

Or dial: (US) +1 614-992-2139 PIN: 122 918 873#

More phone numbers: <https://tel.meet/org-jjmq-oku?pin=6995973876510>

 편집인: 임정현, klsweeditor@gmail.com